**자 기 소 개 서**

**성장과정**

2018년 학부생 연구원으로 ANSYS(구조해석 툴)를 이용하여 데모엔지니어링에서 새로 개발 중인 천공기의 CAD파일을 받아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ANSYS를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매주 교수님과 세미나를 갖는데, 처음 CAD파일을 받고 막막했을 때, 교수님께서 바로 구조해석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정역학과 재료역학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손으로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손으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받는 하중과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가장 하중이 많이 받으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찾고 계산하는데 2주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2주간 교수님과 세미나에서 다른 연구원들은 전처리 과정을 보여준 반면 저는 보여드릴게 없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꿋꿋이 직접 계산하고 결과를 찾았습니다.  
찾고나니 다른 연구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취약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석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친구들과 같은 부분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상 실수를 찾기위해 엔시스 책을 선배에게 빌렸습니다. 유압을 넣는 부분을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친구들의 해석 결과와 제가 직접 구해본 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됬고, 이 부분을 수정하였더니 손으로 구한 결과와 같은 것을 알게되었고, 그 다음번 세미나때 다른 해석결과 때문에 교수님께서 대략적으로 자유물체도를 그리셔서 구해보니 제 해석결과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해낼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창시절**

저의 성격의 장점은 성실함 입니다.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끝내놓으면 안 되는 성격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 기업 진흥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저는 하루 교육받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탓에 교육받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암기하려 교육이 끝이 난 후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출근 전까지 교육받은 책자를 꼼꼼하게 읽으며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업무투입 후 실수도 없었고, 출근 첫날부터 많은 업체들로부터 전화 문의와 방문 문의 등이 있었지만 교육받은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있어서 응대를 아주 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과 대리님께서 원래 하던 일이었냐고 일을 꼼꼼히 잘한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이런 성실함 덕분에 일을 할 때 추진력 있게 일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팀원들을 모으고, 남들 의견도 열심히 듣고, 잘 조율해서 팀 과제도 큰 무리 없이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학생회 복지부장을 역임할 당시 부원들에게 일을 나누어 지시할 때, 부원들에게 일을 일방적으로 시키지를 못합니다. 부원들의 능력을 보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 주고 제가 상당부분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다보니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하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해오라는 통보식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을 맡기기 때문에 일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소개**

[무대공포증을 극복하라]  
저는 어렸을 때 웅변대회에 나갔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무대공포증이 너무 큽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는 못 느끼지만 PPT발표나 팀 프로젝트 발표만 되면 손에 식은땀이 흐르고, 말을 절고, 했던 말을 반복하고, 머리가 하얘져서 암기했던 내용들을 다 까먹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려 해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기 수업을 들어보라고 권유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총 3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곤 1차 발표 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머리가 하얘져 발표 중간에 암기한 내용을 다 까먹었고 발표를 다 못했습니다. 이에 몹시 실망했습니다.  
2차 발표 때는 팀을 이뤄 연극을 하는데, 이번에는 꼭 무대공포증을 극복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진해서 하였습니다. 열심히 대사를 외우고, 친구들 앞에서 여러 번 연기해보며 친구들에게 피드백도 받고, 룸메이트의 도움을 받으며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날 다른 생각 안하고 룸메이트 앞에서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암시를 몇 번이고 했습니다. 떨리고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완벽에 가깝게 발표를 마칠 수 있었고, 저희 팀 발표가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 결과 2차 발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무대공포증은 있긴 하지만, 말하기 2차 발표를 통해 무대공포증은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느꼈고 무대공포증 또한 많이 극복했습니다.

**지원동기 및 포부**

21세기 자동차의 핵심은 IT기술과 전기화된 자동차에 맞추어 더 중요해질 와이어링 하네스, 고전압 시스템, 정션 블록을 현대, 기아를 넘어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경신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2D, 3D CAD를 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캐드에 상당한 흥미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CATIA, SOLID WORKS 수업에서 A+를 맞았고, 방학 때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CAD(PRO-E)수업 조교로써, 고등학생을 지도할 정도의 CAD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CAD실력을 증명받기위해 솔리드웍스 자격증인 CSWP와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따 내었습니다.  
이런 저의 CAD능력을 바탕으로 점차 전기화되어가는 자동차 시장에 발맞추어 좀더 효율적인 전력을 사용하며, 환경과 안전 등 향후 여러 방향으로 발전될 차내 전기시스템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가장 기초를 다지는 CATIA를 이용한 설계로 더 나은 하네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저의 직무를 익히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전반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지식이 부족한 전기 회로에 관한 관련 도서들을 구독하여 지식을 넓혀, 하네스 설계 분야에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습니다.